

나는 한국의 가족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일단은 옛날의 한국의 가족구조는 대가족 형태였다. 대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집에서 양친과 아이는 물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가까운 친척도 함께 사는 일도 있었다. 이 처럼 대가족의 형태로 지내면서 나라가 발달하고,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상공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한국의 가족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직장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상공업은 농업과 비교해서 주로 대도시 근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지방이라든지 시골 사람들은 원래의 집과 떨어져 직장 근처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 내었다.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가족이 핵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장남의 경우는 양친과 함께 지내고있는 가족도 많이 있지만 그 경우는 대개 양친이 노쇠하여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